

“수상작 신문에 실렸던 기억 아련…문학의 길로 들어선 큰 계기”

호남예술제 70년

〈10〉호남예술제를 빛낸 예술가 - 고재중 시인

‘문학들’ 초대 주간 역임…시집 등 20권 발간, 유수의 문학상 수상
호남예술제 70년 큰 의미…인문학 등 기초예술 국가 차원 지원 필요

“돌이켜보면 문학에 하게 된 것은 호남예술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상을 수상한 작품이 신문에 실렸는데 저에게는 큰 동기 부여가 됐지요.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호남예술제 참가와 수상 기억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재중 시인은 중학교 때 참가한 호남예술제에서 산문 부문 최고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당시 시대상을 학생의 시선으로 표현한 ‘새마을길’이라는 작품이었다.

고 시인은 “70년대 초중반 새마을운동으로 변화되는 마을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라며 “마을길을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는 장면을 글로 표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새마을운동이 다소 문제되는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당시 중학생 눈으로는 마을이 새롭게 변모되는 부분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 즈음 시골학교에서는 분야별로 몇 명씩을 뽑아 호남예술제에 나갔다. “선생님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주공원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했다”며 “대부분 도시에 사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

에 아무래도 시골 ‘촌놈’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은 오래 전 일을 떠올렸다.

또한 “호남예술제가 한 해도 중단하지 않고 70년을 이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역사”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넘어 전국의 대표 예술제로 명성을 지속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담양 출신의 시인은 1984년 실천문학에 작품을 발표하며 문단에 얼굴을 내밀었다. 이후 시집과 시론집, 산문집 등 모두 20권의 책을 펴냈으며 신동엽문학상, 시와시학상 젊은시인상, 소월시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조태일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등단 40주년을 맞은 그에게 호남예술제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청소년 시절에 큰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사건’이었다.

“예술제가 끝난 며칠 후 학교에서 수상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게 됐어요. 얼굴과 글이 실린 신문이었죠. 장학금까지 받게 되자, 막연히 글을 쓰는 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는 호남예술제 수상으로 어느새 ‘마을 유자’가 돼 있었다. 또 하나 잊지 못할 기억도 있다. 반 짝깍의 누나가 어떻게 알았는지 수상 소식을 듣고는 뺑을 사주며 격려까지 해주었다. 학교와 지인분들의 칭찬과 격려로 그는 본격적으로 문학의 꿈을 꾸게 된다.

그러나 죽세공 하나로 생계를 연명해야 하는 가난한 형편 탓에 장학금을 받고 읍내 농고에 입학해야 했다. 그마저도 얼마 후 그만 두게 된다. 사춘기 시절 카프카의 ‘변신’을 비롯해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스탕달의 ‘적과 흑’과 같은 세계문학을 탐독했던 그에게 축산이나 수산 등과 관련된 수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어진 기나긴 방황과 서울살이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거처를 옮기는 등 젊은 시절은 흔들림의 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비판 시집 두 권을 보게 되면서 시를 쓰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중학생 때 호남예술제에 참가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창작 시들이 1984년 실천문학 신작시집 ‘시어 무기여’에 실림으로써 마침내 그는 ‘시인’이 된다. 호남예술제 출신 학생 문인은 비로소 문인이라는 ‘명함’을 갖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바람 부는 숲속에 사랑은 머물고’, ‘사람의 등불’, ‘날랜 사랑’, ‘쪽빛 문장’, ‘꽃의 권력’, ‘고요를 시정하다’ 등의 시집을 펴내며, 그는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일구었다. 또한 틈틈이 광주가톨릭센터와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에서 시 창작 강의를 했다. 문단 선후배, 애독자들과 함께 시를 읽고 쓰며 문학의 지평을 넓

히는 한편 종합문예지 ‘문학들’ 창간에 참여해 초대 편집주관을 맡아 지역 문학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한편으로 그는 문학을 비롯해 읽기 문화가 예전에 비해 많이 쇠퇴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아무리 영상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을 떠받치는 원텍스트는 문학과 인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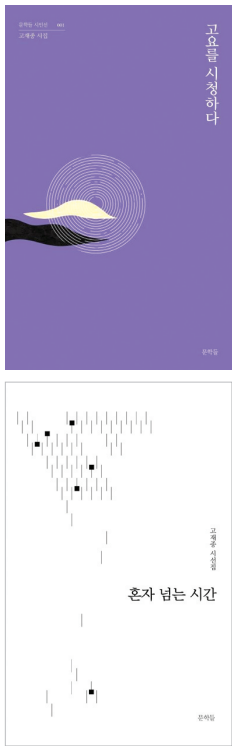
“국가 차원에서 문학을 비롯한 기초 예술에 대한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합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은 문학이 가진 힘, 기초예술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단면이었지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하고 전통이 있는 예술제 등은 지원해야 기초 예술도 살고 문화도 삽니다.”

그는 최근 등단 40주년을 기념해 시선집 ‘혼자 남는 시간’ (문학들)을 펴냈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집을 독서당이자 집필실로 쓰며 꾸준히 창작과 읽기를 병행한 결과다.

시인의 하루는 인터넷 서점에서 신간을 검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한 달에 20여 권의 책을 사서 읽을 만큼 독서는 중요한 일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경에도 관심이 많은데 관련 책들을 찾아 부지런히 읽고 있어요. 향후에는 불교적인 사유를 담은 작품을 펴낼 계획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고재중 시인은 호남예술제 수상 경험이 문학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아리랑에 숨은 비밀 ‘암호명 3·1’

극단산, 연희창작극 ‘비밀의 노래’…17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민중의 노래 ‘아리랑’이 하나의 비밀이 되어 깊고도 뜨거운 이야기로 되살아난다. 삶을 품은 소리, 자유를 노래한 기억이 무대 위에 다시 펼쳐지는 것.

극단산이 선보이는 연희음악극 ‘비밀의 노래’가 오는 17일 오후 7시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독립운동의 숨은 이야기를 전통 연희와 음악, 퍼포먼스로 풀어낸 이 작품은 익숙한 아리랑을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한다.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암호로 쓰였다는 상상이 무대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주인공은 유랑극단을 이끄는 만석과 정선 산골의 소리꾼 기복. 만석은 정선아리랑의 은유

적인 가사를 이용해 독립운동 정보를 숨기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기복에게 동참을 권한다. 이후 두 사람은 경성으로 향하고, 기복은 독립군으로서 첫 임무인 ‘독립선언 작전-암호명 3·1’을 수행하게 된다. 작품은 이들의 여정을 통해 ‘비밀의 노래’가 어떻게 민중의 일상과 결합해 해방을 향한 흐름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

공연은 정선·진도·해주·밀양 등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해학과 풍자, 노래와 춤으로 풀어내며 일제강점기 민중의 삶을 생생히 재현한다. 단순한 음악극이나 전통 연극을 넘어, 전통 타악과 민요, 현대적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다원 예술을 선보인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아리랑 고유의 밝고 해학적인 정서를 잃지 않



독립운동을 소재로 한 연희음악극 ‘비밀의 노래’가 오는 17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 공연의 한 장면. <극단산 제공>

으며 관객에게 웃음과 울림을 동시에 전한다.

극단산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의 정서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함께 담은 무대가 될 것”이라며 “보성에서의 단 하루, 특별한 공연을

통해 아리랑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전석 1만원 (보성군민 3000원), 티켓링크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박채영 작 ‘5·18’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광주시 예선

박채영 도자작품 ‘5·18’ 최우수상

‘제5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광주광역시 예선대회’에서 전남대 재학 중인 박채영 씨의 도자작품 ‘5·18’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김용모)은 최근 시상식을 갖고 진흥원 상설 전시장에서 우수상, 장려상 등 25개 작품을 전시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채영 씨의 ‘5·18’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티브로 제작한 다기세트다. 작품은 단아하면서도 섬세하며 깊은 감성을 발한다. 흙이 다기로 변모하기까지의 불과 연단의 시간, 그리고 찜과 노고의 흔적을 가늠하게 한다.

박 씨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기를 매개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가라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우수상에는 송해랑 씨의 ‘식물예찬’, 장려상 송경래 씨의 ‘담다’가 선정됐으며 특선, 입선 등 모두 25개 작품이 수상했다. 수상작들은 오는 8월 부여군 한국전통문화대에서 펼쳐지는 ‘제5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 본선에 출품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영화비평지 ‘썬1980’ 6주년 20호 발행

광주영화영상인연대, 지난 6년간의 여정 되짚는 특집호 구성

전국 유일의 지역 영화비평지 ‘썬1980’이 창간 6주년을 맞아 20호를 발행했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최근 지역에서의 영화 비평 생태를 꾸준히 일궈온 ‘썬1980’의 통권 20호를 출간하며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20호는 창간 준비호를 포함한 지난 6년

간의 여정을 되짚는 특집호로 구성됐다. 창간준비호부터 지금까지 발행된 총 21권의 목차와 필진, 핵심 이슈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편집위원들이 직접 작성한 자평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진지하게 조망한다.

편집 구성에도 ‘주제어 중심 편집’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더해졌다.



이번 호 주제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필진의 글들을 유기적으로 엮었다. 고정 코너인 ‘크리틱’, ‘시네마틱 뷰’, ‘도큐멘타’ 등에서는 플랫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선에서

영화를 재조명한다.

‘클로즈업’ 코너에서는 교사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 중인 김아솔 감독을 소개한다.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며 교육과 창작의 경계를 허무는 김 감독의 작업은 공동 창작의 의미와 예술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준다.

독자 참여 코너인 ‘픽앤리슨’에서도 이 작품이 주요 소재로 다뤄졌으며, 관객들의 감상평을 공유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참여자 중 일부에게는 광주독립영화관 관람권이 증정된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 제 보 청 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2) 227-9940
062) 227-9970
02) 765-9940
061) 752-9940